

소통하려면 내 무지 깨뜨려라

할 때 망설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말라. 그에게 언론의 자유를 줘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에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란 말도 신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살지 못하게 해요.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우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것, 즉, 사명감이라는 것이 견해를 고집하는 건데 견해를 고집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견해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볍고, 맑고, 밝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맑고, 밝고, 가벼워야 늘 진정한 행복이 오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딪치는 경계 속에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마음의 작용은 결국은 자기 까르마로부터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객관 사실의 옳고 그름 게 아니고 내 업식에 의해서 이것이 옳게요, 그르게요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단순히 부분문제 아니고 이게 공부고 수행이다 이거죠. 부분관계가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 같았는데 그런 이치를 깨닫는 순간, 모든 갈등이 눈 녹듯이 녹아 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놓고 내가 그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해 집니다. 나의 무지를 깨뜨려서 나의 편견을 벗어던져서 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무지를 깨뜨리고 한 생각 풀이키면 세상 사람하고 소통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나와 갈등이 있는, 내가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바로 수행의 과정로 돌려야 합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자식에게 일어나는 내 마음을 늘 들여다 보면서 내가 이런 분별심이 합쳐있는구나. 그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분별은 죽을 때

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든지, 분별이 없어야 한다든지 이런 단정을 짓지는 마세요. 분별이 일어날 때 다만 분별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에 또 사로잡히구나, 내가 옳다고 고집하구나, 다만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이 지속 되면 닦히는 마음은 없애고 나를 뽐나. 언제나 경계에 부딪혀서 나를 보게 되고 항상 거기에 끼어있게 되면 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노인은 맞춰주고, 부부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자식은 어릴 때는 돌보아 주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끊어주고, 그리고 자식에게 생기는 문제는 나의 문제임을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법에는 수행만이 있습니다. 재가든, 출가든 그 수행을 전문적으로 출가해서 하느냐, 재가에서 수행하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늘 세상 속에서 보리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불법을 만나서 견도(見道) 법의 이치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삶 속에서 보림 하듯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거울로 생각해서 늘 그런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해나가면 오히려 스님들보다 더 빨리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열



법륜 스님의 생활선 법문을 경청하는 광주지역의 스님들.

침내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원리를 보세요. 닭도 병아리를 까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돌봐주는 사람은 있는데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행작용을 거둬하면서 뛰든지 따라 배우다가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기 시작하는 사춘기 과정에 무조건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나이가 스무 살이 넘고, 대학은 나오고, 박사는 됐는데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 자립적으로 살 아무런 능력이 안 돼 있어요.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든, 사고를 치든 그것이 다섯 가지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켜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넘으면 부모는 자식과의 일체 관계를 끊어줘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해야 자식이 자립적인 인간이 됩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자녀의 길을 막아놓고, 자녀가 길이 막히니 부모 밑에 붙어서 평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슬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늘 인간관계를 공부거리로 삼아버리면 훨씬 더 빨리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켜서 내가 거기 안주하려고 그러느냐? 덕 불러 하느냐? 아니면 내가 깨쳐서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해가 되려 하지 않고 이해하는 쪽으로, 사랑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랑 하는 쪽으로, 도움 받으려 않고 도움 주는 쪽으로 내 삶을 보디사트바(Bodhisattva, 보살)로 전환 할 것이냐, 이 기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법에 돌아오고, 생활 속에서 정진을 해 나가신다면 행복은 추상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이 가볍고, 밝고, 맑아야 그것이 행복이지, 일상을 떠나서 행복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힘들든 있지만 괴로워서는 안 돼요. 괴롭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상 속에서 정진을 하면 일상적으로 늘 참나 참나, 매일 매일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진하게 된다면 어떤 돈도, 지위로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이 조금 더 부처님 법에 집중하고 귀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1. 송광사 촌곡 대화상

촌곡 스님은 승주군 송광면 장안 출신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이력을 마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인쇄체의 대가였다. 글씨를 써 놓으면 인쇄를 해 놓은 건지 손수 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필 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으로 구름 속에서 벗어난 해와 같네." "가을 못 속에 드리워진 달입니다."

마치 물 먹은 피조가 푸른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아득답기 그지 없다. 2m가 넘는 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손발. 2500년전 부처님의 손발이 그렇게 생겼을 거. 사람들은 만져보고 10대 소년 같다고 칭찬했다. "우리 어머니가 이것 하나는 잘 날아봤어."

하고 너털웃음을 웃으면 조계

"청풍명월(淸風明月)은요?" "맑은 바람에 밝은 달. 이렇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소." 이것이 스님의 포교정신이다.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주인이고, '백운'은 흘러가는 것이니 손님이다. 청산과 백운이 한데 어울리면 한 수의 시가 된다. '청천(靑天)에 백운(白雲)이 만리(萬里)에만 통(通)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난 보람은 끝도 갖도 없으리라.

"맑은 바람"은 아내요. '맑은 달'은 남편이다. 어두운 세계에 밝게 빛나는 달빛처럼 맑은 사람과 거기 크게 드러나지 않고 맑은 바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이야 말로 꽃집안이 될 것이다.

고흥 능가사 주지를 지내면서 후배 이산 스님과 같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냈는지,

"아서라. 중웃을 입고 이런데 들어오면 못쓰는 것이여. 그러니 어서 짚에 가서 밥 먹자."

하고 가깝거리 한 잔을 달게 드셨다. 지금 돌아간 뒤에는 재사상에 딱딱한 통석을 올려놓지만, 그때 한 잔만은 못한 것 같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장소에 맞춰 알맞게 행하는 것이 약인 것 같다.

"천하총림만사산(天下叢林飯似山: 도처에 총림이요 흠족한 밥이거늘)이요, 발우도처임군찬(鉢盂到處任君餐: 발우 들고 가는 곳에 밥 세 그릇 걱정하리)이라. 황금백벽비위귀(黃金白壁非爲貴: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 알지 마소) 유유가사피최난(惟有袈裟被最難: 가사장삼 얻어입기 더욱더 어렵네). 집내대지산하주(假乃大地山河主: 이내 몸 중원 천하 임금노릇 하건만) 우국우민사전변(憂國憂民事轉煩: 나라

인쇄체의 대가... 절식·세속식 때와 장소 맞춰 알맞게 행해

산이 들쭉들쭉 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 사리가 와서 "큰 손님 오십니다" 하면, "주지스님께 아뢰어라" 하고 하얀 모시 장삼에 빨간 가사를 입고 나와 주지스님 뒤에서 서서 손님을 맞는다. 그러면 손님들은 촌곡 스님이 주지스님인 줄 알고 "큰스님 잘 받으세요." 하고 3배를 한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절식은 절식대로 엄하게 하여 아무리 큰 손님이 오셔도 작은 상에 밥상을 놓아 행자들 맨 끝에 앉혀 대접하고, 밖에서 대접할 때는 속가의 법에 따라 환희심으로 대접했다. 그러므로 한번 다녀간 사람은 늘 스님을 찾아 환담을 즐겼고, 글씨 한 장 받아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청산백운(靑山白雲), 이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산은 흰 구름을 붙들지 않고, 흰 구름은 푸른 산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재영재영우재영(再榮再榮又再榮) 촌곡산전백화만(春山山川白花滿)." 이라는 시를 지어 가지고 오셨다.

촌곡 스님의 본 이름이 재영이다. "재영재영 부르고 또 불러도 한 없이 불러지는 이름이여, 봄 끝까지 산과 내에 흰 안개가 가득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시다. 1962년 봄 필자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자, 촌곡 스님이 친히 올라오셔서 대학교재 일체를 사 주셨는데,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아리 고개를 넘게 되었다.

"애야! 너 거기 잠깐 섰거라." 하고 들어가는 곳을 보니 선술집이었다. "앗차 늦었구나. 왜 이리 미련하단 말이나." 하고 따라 들어가 음식을 시켜려 하니,

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백년삼만육천일(百年三萬六千日: 인간의 백년살이 삼만육천 날이지만) 불금승가반일한(不及僧家半日閒: 풍진 떠난 명산대찰 한 나절에 미칠승가). 하고 '순치황제 출가시(順治皇帝出家詩)'를 크게 읊으며 만족해 하시던 중노릇을 우러러 바라보며 회상한다.

바로잡습니다 759호 '지암 이종익(智庵 李鍾郁, 1884~1969)'은 '법운(法雲) 이종익(李鍾益, 1912~1991)'의 오기이며, 사진은 이종익 스님의 진영임을 밝힙니다. 내용의 혼선을 빚어 죄송합니다.

※ 카타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프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 3절 (30.5x63cm) | 대-국 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치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